

與 “국립대 반값등록금” 한다더니... 교육공약 결국 ‘공염불’

국립대 육성 지원 증액 불발
방통대 야간로스쿨 설치 등
내년 예산안서 대부분 빠져
“시행 의지라도 보여야” 지적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당의 총선 교육공약 대부분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공약했던 국립대 육성사업 강화 및 개편과 국가장학금 단가 확대를 위한 예산은 증액 없이 예년과 같은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른바 ‘국립대 반값등록금’과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 설치에 관련 예산은 물론 사업 정책연구조차 시행되지 않아 교육공약 대부분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을 보면,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내세운 교육공약 대부분은 결국 내년 예산안에

〈여당의 총선 교육공약과 2021년 예산안 시행 여부〉 /이은주 의원

여당의 총선 교육공약	21년 예산안	관련사업	비고
방통대 및 야간 로스쿨	X	-	사업 없음
국립대 육성사업 강화 및 개편	X	국립대학육성사업	증액 없음
국립대 반값등록금	X	-	사업 없음
국가장학금 단가 확대	X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전년 동일
ICL에 대학원생 포함	X	한국장학재단 출연	내용 없음
학자금대출금리 인하	O	한국장학재단 출연	내년 1.7%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제21대 4·15 총선에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국립대 반값등록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에 대학원생 포함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 설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 국립대 교육의 질과 등록금 부담 개선

을 위해 팔을 걷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국립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4배 이상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1500억원 그대로 편성되며 증액은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국립대 반값등록금 정책도 제안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은 연평균 419만원인 국립대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국립대 명목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 사업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존 4조 18억원에서 되레 3조 9930억원으로 0.2%p 감액됐다. 교육부 요구안인 4조 356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ICL에 대학원생 포함한다는 공약도 예산안에 없다. 다만,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다면 그 이후 반영될 여지가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약도 결국 내년 실행 의지를 담지 않았다. 여당은 총선 공약에서 “계층 이동 사다

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를 1.6~1.7%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예산안에 담기며 약속을 지켰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1.7%로 가정한 예산안이다. 올해 2020년 1학기 2.0%에서 2학기 1.85%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더 낮아진다.

공약 사항을 모두 당해 지킬 수 없더라도 정책연구 등을 통한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에 없으면 정책연구 또는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정부 여당은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과기대, 지역난방공과 그린뉴딜 ‘맞손’

그린캠퍼스 전환, R&D
기술교류 활성화 등 MOU

서울과학기술대는 지난 9일 서울과기대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국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그린캠퍼스 전환과 R&D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인적·물적자원 교류(임직원 위탁 및 현장교육, 교육시설 및 연구 결과 등 제공)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관련 연구수행 활성화 ▲집단지능지 기술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학위 및 비학위 과정 개설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총장은 “우리 대학이 그린캠



(왼쪽부터)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주임교수, 권용재 산학협력단장, 김성곤 대학원장, 이동훈 총장,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고용진 국회의원(노원갑), 이경실 부사장, 임종원 미래개발원장, 이정석 대외협력본부장 /서울과기대

퍼스도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활발히 교류하고 공동연구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앞으로 산·학이 그린캠퍼스를 구축하고 R&D 및 기술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유했던 역량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14일 입학설명회 콜로кви엄

사이버한국외국어대는 TESOL대학원이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학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34차 콜로кви엄’과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콜로кви엄은 ‘EBS-FM STAR T ENGLISH’ 진행자이자 영어교육전문가인 이보영(썬미소) 대표를 강연자로 초청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보영 대표는 ‘After TESOL..what at next’을 주제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교육 채널의 효용성, 그리고 미래 영어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고민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테솔대학원 콜로кви엄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TESOL대학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나만의 전공 만들어 이수하세요”

‘자기설계 전공제’ 도입

건국대가 학생이 주전공 이외에 자신의 진로계획에 맞게 새로운 융합형 전공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이수하는 ‘자기설계전공제’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건국대가 마련한 이 제도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학점 취득과 동시에 복수 전공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가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10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자기설계전공제는 2020년 2학기 기준 2~8학기 재학생 중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전공 교수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과하면 2021년 1학기부터 교육과정으로 정식 개설되고 이를 이수하면 학위증에 동시

표기 된다. 예를 들어 인지과학 관련 분야를 자기설계 전공으로 이수하고 싶은 학생은 설계전공명을 ‘인지과학’으로 설정하고 심리학과 철학, 생명과학과 같은 자신이 원하는 관련 전공을 연계 전공으로 구성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데이터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다면 경영학, 응용통계학, 컴퓨터공학, 수학과 같은 전공의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설계하고 이를 수강해 이수하면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자기설계전공은 학생 소속 학부 전공을 제외한 최소 2개 이상의 전공에서 24학점 이상(30학점 이하) 교과과정을 학생이 직접 편성하면 된다. 편성한 교과목 중 최소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할 시 학위증에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이 표기된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건축학과 건축학회 학생작품전 ‘최우수상’

호서대는 공과대학 건축학과가 ‘대한건축학회 2020 학생작품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온라인 전시로 개최됐다.

최우수상은 5학년 박지민 학생의 ‘주민 모두의 평생학교-은혜초등학교 리노베이션’ 작품으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폐교 은혜초등학교를 리노베이션 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를 건축적으로 풀고자 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동네 소통을 단절시킨

요소인 폐교 초등학교에 기존 학교의 장소성을 되찾아 준다는 기획으로 짜였다. 더 이상의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는 교육 시설이 아닌 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시설로 바꾸는 방안이다.

우수상은 5학년 김석준 학생의 ‘국립 아동 완화의료센터’로, 이 작품은 현대 시대에 암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암환자도 늘어 독립형 시설인 아동완화 의료시설을 계획하는 내용이다.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시설을 디자인했다.

/이현진 기자

김진식 울산대 교수, K-MOOC 표창

울산대는 김진식 프랑스어·프랑스학과 교수(사진)의 ‘육망의 이해: 모방이론으로 우리 일상 돌아보기’ 강좌가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우수강좌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는 강좌 수강생 수·강좌 참여율·참여 대비 이수율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 강좌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김 교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망의 본질을 다양한 콘텐츠로 전 연령대에 전달하는 데 강좌의 주요점을 두었는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인문학적 소양을 확장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미래사회’,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서울사이버대 발행 전문학술지

서울사이버대는 대학내 미래사회전략연구소가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미래사회’가 국내 사이버대학으로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를 거쳐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다.

‘미래사회’는 지난 2010년 창간 이후, 미래사회의 의제를 도출하고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미래사회’는 학문성과의 국내외 활용과 기여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차원의 성찰과 구체적인 적용을 추구한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음을 우수하게 평가 받았다.

/이현진 기자